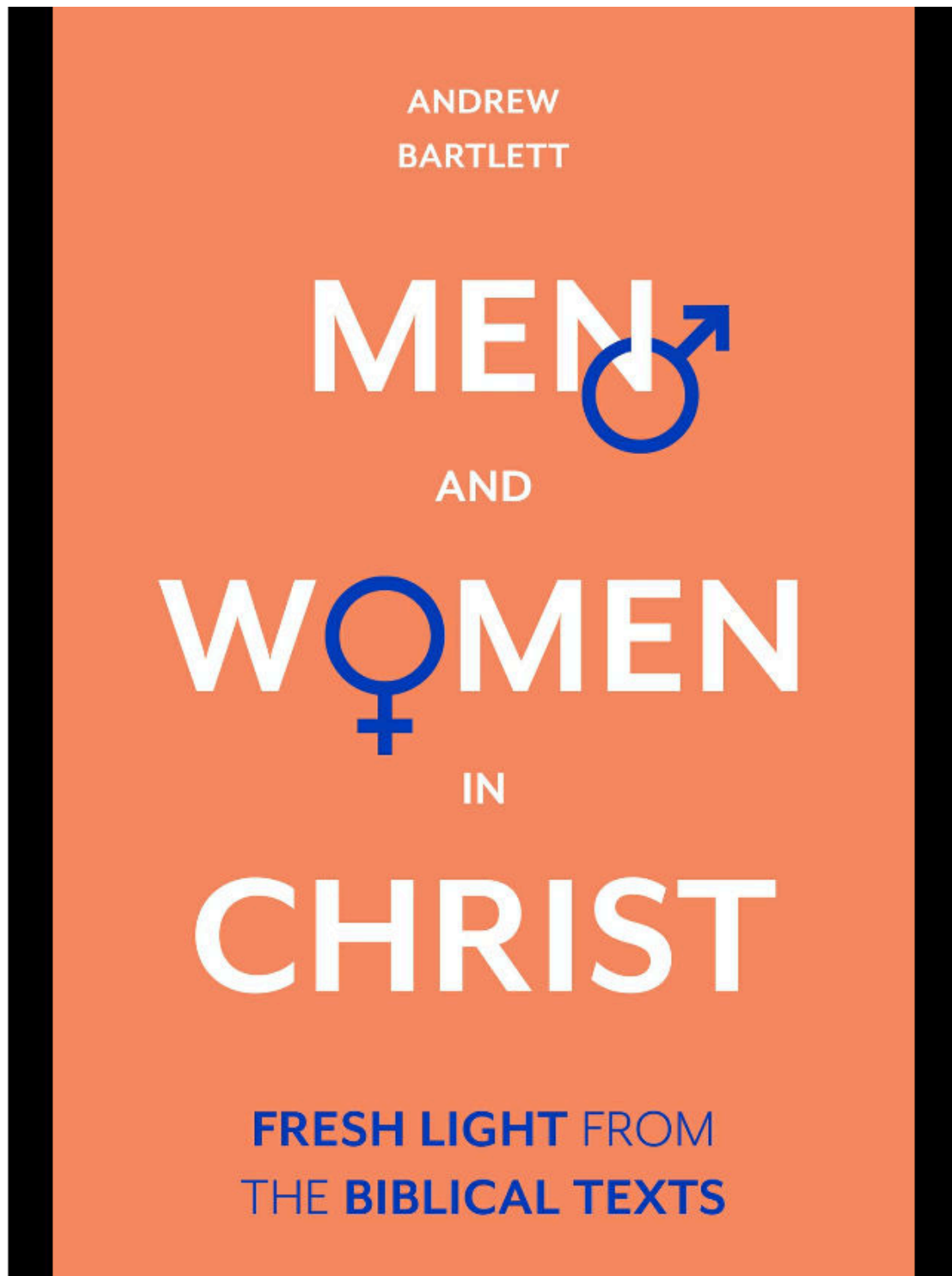


Bartlett, Andrew. Men and Women in Christ IVP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 KC는 현재 주로 국제 분쟁 조정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사상가인 그는 신약성경과 성경 전체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모든 신학적 논증을 고려하면서 철저히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 주제에 편견 없이 다가가려고 애쓰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일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가 논증이 그저 약하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곳에서 평등주의 입장도 비판한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바틀릿이 직접 작성한 주요 장들의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2026년 10월 개정.

이 문서는 앤드루 바틀릿의 허락을 받아 홈페이지 www.hans-joerg-ronsdorf.de에 게시되었습니다.

저는 성경과 일치하여, 교회의 건강을 돕기 위해 여성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과 이끄는 사역을 맡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5일

제1장 요약: 전통을 다시 생각하고 일치를 추구하기

1.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평등주의자들과 상호보완주의자들 사이의 양극화된 분열로 손상되고 있습니다.
2. 여성이 본성상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정당하게 거부되었습니다. 그 해석은 본문 자체보다는 가부장적 문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평등주의자들과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모두 여성과 남성을 본성상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며, 이제는 여성이 사회 전반에서 지도적인 임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자들은 교회와 결혼에서는 남자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전통보다 성경에 우선권을 두고, 문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맥 안에서 원어로 돌아가고, 일관성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정경적 접근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영적인 열린 마음과 실천적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부록 1).
4. 이 방법들을 적용하면 이 책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곧 상호보완주의 입장과 평등주의 입장은 각각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5.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들에서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혼란스럽고 상처 입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가 감당하는 섬김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제2장 요약: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고린도전서 7장

1. 고린도전서 7장은 신약성경에서 결혼을 가장 길게 다루는 본문으로 두드러지며, 신약성경에서 남편의 권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은 상호보완주의적 분석에서 간과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바울의 세계관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창조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지만, 구속과 새 창조가 전면에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의 관점은 메시아가 오셨고 종말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현재 처한 모든 삶의 형편을 상대화합니다. 앞으로 올 것과 비교하면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빛 아래에서 그는 독신을 권하며, 눈에 띄게 동등한 결혼관을 내세웁니다.

3. 바울이 3-5절에서 가르치듯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는 일방적인 결정을 거부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아내에 대한 일방적인 권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4. 3-5절을 남편의 일방적 권위에서 성관계와 함께하는 기도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예외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5. 1-16절, 25-28절, 32-40절에서 알 수 있는 한, 바울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권위를 믿었다면, 그가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로 보일 것입니다.
6. 그렇다고 바울이 현대적 의미의 평등주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결혼 안에서 각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등한 두 배우자 각자에게 상대방에게 복종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로마서 12:10; 갈라디아서 5:13; 빌립보서 2:3과 일치합니다.

제3장 요약: 위계, 복종 그리고 사랑: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

1.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전해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서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바울은 위계가 적절한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3. “복종하다”(hupotassō)라는 단어에는 서열상 다른 사람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바울의 지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결혼 안의 위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 복종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내들이 남편들이 자기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복종은 다른 사람에게 의문 없이 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불의를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없습니다.
5. 1세기 문화에는 결혼에 대한 통일된 관점이 없었지만, 대체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일방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한 바울의 지시는 부분적으로 실천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7. 바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지지하지만, 노예에 대한 노예 소유주의 권위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의 세 관계(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버지, 노예와 주인)를 비교해 보아도, 바울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일방적 권위를 옳다고 여긴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제4장 요약: 결혼은 구원자를 보여 준다: 에베소서 5장

1. 새 창조가 완성될 때 유일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연합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현시대의 결혼을 이 실재를 가리키는 표지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데서 나오는 결과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2.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와 결혼 안에서 남편이 받은 부르심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 “머리”라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이것은 한 가지 뜻만 가진 고정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문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21-23에서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4:13-16에서는 그분이 구원자이심에 강조점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의미를 남편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a) 5:23에서 “교회의 머리”와 “그 자신이 몸의 구주”가 동격으로 놓여 있다는 것, (b) 5:25-33에서 바울이 다루는 구원자 되심이라는 주제, (c) 5:31-32에서 그가 창세기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d) 5:24의 첫 단어(*alla*, “그러나”)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남편을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에만 문맥에 맞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3. 머리와 몸의 은유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남편의 머리 됨의 의미는, 그가 아내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왕관을 쓴다면, 그것은 가시관입니다.
4.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편들이 아내들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내가 복종해야 할 이유로 그리스도의 본과 그분에 대한 경외(1-2절, 21-22절),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섬겨야 할 남편의 책임(22-23절)을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의 일방적 권위에 근거한 이유는 들지 않습니다.
5. 바울이 21절에서 요구하는 복종은 신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피차 복종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6. 위에서 설명한 제한적이고 특별한 의미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구별합니다. 책임의 분명한 구별을 모두 거부하는 평등주의적 관점은 바울이 머리와 몸의 은유를 사용하는 방식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교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7. 에베소서 5장을 본받아 사는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분의 교회를 향한 희생적 사랑을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8. 바울은 가정을 함께 이끄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5장 요약: 창조와 삶: 창세기 1-3장 그리고 그 너머

1. 남자의 지도적 권위를 지지하는 창세기 1-3장의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은 성경 본문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불확실한 추론에 근거합니다. 그중 어느 것도 본문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2. 남자 또는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로 주어진 사실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강한 동맹자가 되도록 창조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3. 창세기 본문은 이 구별을 정의하거나 펼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들이 리더십에서의 책임을 드러낼 가능성은 열어 둡니다. 그러나 남자의 지배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16에 묘사된, 아내에 대한 남자의 다스림은 타락의 부정적 결과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어 가거나 더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4. 구약성경에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5. 성경은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특정한 방식으로 나누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꾸리는 동시에 살림을 이끄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상화된 모습을 그립니다.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능력과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잠언 31장을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여긴다면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6. 창조에 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질문에 최종적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타락 이전의 원래 창조를 어떻게 질서 지으셨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뜻에 비추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창세기 2:24의 결혼 제정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연합을 미리 가리키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에베소서 5:31). 창세기 1-3장의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신자들을 새 창조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 타락 이전의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8. 여성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이끈 구약성경의 예들은, 여성이 결코 남성을 이끌거나 남성에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주장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제6장 요약: 복종과 존경: 베드로전서

1. 베드로의 인생관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한 사랑과 복종의 본이 베드로전서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하는 여러 상황에, 결혼을 포함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합니다.
3.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로 베드로가 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남편들을 얻기 위해서, (b)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c) 사라와 같은 과거의 거룩한 여인들의 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 그리고 그로써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것 – 을 놀랍도록 격려가 되는 방식으로 보여 줍니다(3:1-6). 베드로가 아내들의 복종에 대해 드는 유비는, 모든 신자에게 복종하라는 부름(2:15-17),

종들에게 불의한 주인에게도 복종하라는 지시(2:18-21), 그리고 자신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가한 자들에게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본(2:21-24)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남편들을 아내들에 대한 일방적 권위의 자리에 두었다는 것은 그의 이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참이라고 여겼다면, 그것은 언급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이유였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편들에게 아내들에 대한 일방적 권위를 행사하라고 지시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4. 남편들은 “이와 같이” 온유하게 행동하며 아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3:7). 이것은 피차 복종을 가리킵니다.
5. 참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리는 것은 가능한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고 주의 깊게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면, 베드로전서 3:1-7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일방적 권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6. 가부장적 문화는 베드로전서 3:1-7을 남용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강압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은 적절한 리더십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권징이 필요한 곳에서 가장 강한 적절한 조치는 출교이며,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제7장 요약: 베일에 가려진 의미? 고린도전서 11장

1. 고린도전서 11:3은 기도와 예언에 관한 바울의 논의 위에 표제처럼 놓여 있는 틀이 되는 진술입니다. 이 구절이 그의 논증을 떠받칩니다.
2. 바울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삼위일체 교리의 미묘한 뉘앙스를 끌어들이서는 확실하게 또는 설득력 있게 밝혀낼 수 없습니다.
3. 단어 연구는 “~에 대한 권위”와 “근원”이 모두 *kephalē*(머리)의 가능한 은유적 용법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곳의 용례로는 바울이 이 구절에서 어떤 의미를 의도했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맥을 살펴서 밝혀내야 합니다.
4. 바울의 관심사를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에서 찾는 위계적 해석은 옳을 수 없습니다. 그 해석은 여덟 가지 점에서 본문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위계적 해석을 따르려면 바울의 틀이 되는 진술의 기능을 무시하고, 10절을 잘못 번역하고, 바울이 11절을 거꾸로 썼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5. 관련된 문화적 환경에서 여자들의 머리카락은 보통 드러나 있었고 베일로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디모데전서 2:9; 베드로전서 3:3 참조). 그러나 고린도의 이교 관습은 이성애와 동성애를 막론하고 명예롭지 못한 성적 행동을 부추겼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의 긴 머리,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 머리 위로 올려 묶지 않고 풀어 늘어뜨린 긴 머리는 모두 그런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6. 이 단락을 베일에 관한 것으로 읽으면 여러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울은 여자들의 베일 착용이 아니라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씁니다. 올바르게 번역하면 2-16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일이 아니라 머리 모양을 다룹니다.

7. NIV는 이 단락 전체에서 **anēr**와 **gunē**를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각각 "남자"와 "여자"로 옮겨 번역합니다.

제8장 요약: 수치가 되는 머리 모양: 고린도전서 11장

1. 고린도전서 11:3에서 바울의 신학적 동기가 근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예배 모임에서 예언하거나 소리 내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모양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가 연속적이고 논리적이며 일관된 논증을 펼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원과 머리 모양이라는 의미의 해석이 바울이 쓴 내용을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서가 적어도 열 가지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의미의 해석에 대한 반론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바울의 관심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의 머리 모양이 전달하는 명예롭지 못한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그 뜻을 욕되게 하고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 뜻에 신실하고 일부일치이며 이성 간의 결혼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도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에서 성별로 구별되지만, 구속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기여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와 예언은 창조와 구속 모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행해야 합니다.
3. 바울은 이 단락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특정한 이끄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남자에게만 맡겨져 있다는 것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라는 생각과 여성 사역에 대한 제한을 뒷받침하려면, 다른 성경 본문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제9장 요약: 침묵하는 여자들? 고린도전서 14장

1. 34-35절은 33절과 분리된 하나의 단위를 이룹니다. 몇몇 현대 번역본에서처럼 3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일부를 34절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두 구절의 내용은 주변 문맥과 날카롭게 모순됩니다. 이 모순은 해석상의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바울은 여자의 잠잠함이 주 예수의 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4. 이 해석상의 수수께끼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확인할 수 없는 구약성경 본문(34절)과 문화적 이유(35절)에 근거한 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제한이 다른 시대와 문화의 교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0장 요약: 덧붙여진 침묵? 고린도전서 14장

1. 원래 주어진 형태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에게 교회가 정확한 사본을 사용하고 필사 오류나 진정하지 않은 변경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다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힘쓸 의무를 지웁니다.
2. 오늘날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14:34-35로 인쇄되어 있는 본문은 아마도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증거 전체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34-35절을 초기의 난외 메모(주석)나 논평으로 여백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필사자들은 이 난외 메모를 원래 편지의 일부로 잘못 여겨 본문에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어느 자리에 넣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서로 다른 두 자리에 넣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33절 뒤에, 다른 이들은 40절 뒤에).
3. 이 설명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막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다룹니다. 이 설명은 신뢰할 만한 어떤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사본상의 증거가 보이는 모든 관련 특징을 포함하여, 이 구절들과 관련된 모든 역사적·해석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11장 요약: 가르침과 디모데전서 2장: 어려움들

1.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지시들의 목적은 거짓 가르침과 경건하지 않음에 맞서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가르침과 경건을 복돋우는 것입니다.
2. 바울이 디모데전서 2:11-15에서 여자들에게 부당한 제한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모든 해석자가 씨름해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들에는 (a) 에베소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 (b) 12절의 드문 동사 *authentēō*의 의미가 불확실하다는 것, (c) 결정적인 단락에서 바울이 압축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있습니다.
3. 바울의 제한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해석과 조건적이고 제한된 해석 사이의 경쟁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 바울이 여성의 가르침을 인정한 것과 조화되려면 그의 의도가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논쟁이 되는 것은 그가 의도한 제한의 성격입니다.
4. 평등주의자들은 12절의 바울의 제한이 에베소의 특정한 일시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 국한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베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증거와 바울이 쓴 내용의 세부 사항 모두에 들어맞는, 바울의 의도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평등주의적 해석들이 답하기 어려운 네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지적했습니다.
5. 상호보완주의자들은 12절에서 바울의 관심사가 교회에서 누가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심각한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 “나는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모든 공적 교회 모임에 적용되는 영구적 규칙을 세우기에는 이상한 표현 방식일 것입니다. 바울의 제한은 그의 관할 아래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이 표현 방식은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영구적 규칙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13절을 바울이 창조의 원칙에 호소한 것으로 이해할 때에만 보편타당한 원칙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바울은 지역 교회의 리더십이 오직 남자에게만 맡겨져야 한다고 어디에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12절에서 남자들의 지도적 권위를 지키려 했다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예언하는 것도 금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 성경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르치는 활동과 구별되며 특정한 남자 집단에게 맡겨진,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특별한 활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일 바울이 정말로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창세기 2장이 교회에 적용되는 권위 있는 남성 리더십이라는 창조의 원칙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이 원칙은 삶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폭넓게 적용하기를 주저함으로써 스스로 이에 모순됩니다. 그들의 분석은 바울이 왜 창세기에 근거를 두는지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6. 논쟁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양쪽의 주석가 대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특별히 공적 교회 모임에서의 행동에 대한 지시를 준다고 전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쓴 내용의 세부 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2장이 공적 교회 모임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12장 요약: 가르침과 디모데전서 2장: 문맥에서 얻는 열쇠들

1. 네 개의 열쇠가 문학적·역사적 문맥에 온전히 뿌리내린 2:9-15의 해석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구절들을 정말로 1:1-2:8의 문맥 안에서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들에 관한 두 개의 긴 단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5:3-16에서 역사적 상황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편지의 첫 독자인 디모데의 처지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2:9-15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셋째 열쇠는 *authentēō*의 의미를 우선 문맥에서 잠정적으로 찾아낸 다음, 가능한 의미들의 폭에 비추어 검증하는 것입니다. 넷째 열쇠는 바울이 15절에 세워 둔 이정표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정보는 마술과 점성술이 행해지던 환경을 보여 줍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마술과 점성술적 사고를 던지시 언급합니다. 에베소에 퍼져 있던 거짓 가르침에는 주술과 점성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향에 맞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영적 싸움입니다.
3. 11-12절에서 바울의 관심은 특정한 부유한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 9-10절에서 그의 날카로운 권면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게으릅니다. 그들은 단정하지 않게, 사치스럽게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성적 욕망을 채워 줄

남자를 찾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거짓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그 대신 이 여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법을 배우고, 조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여자들은 악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교회에 남아 있는 거짓 교사들이며, 디모데가 다루어야 할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들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새로워진 삶과 변화된 성품을 증명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장로나 여성 집사의 직분을 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13장 요약: 가르침과 디모데전서 2장: 바울의 논증

1. 셋째 열쇠를 적용하면, 디모데전서 2:9-12의 문맥에서 *authentēō*는 "제압하다"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값비싸고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품위와 절제가 없는 거짓 여교사가 남자를 가르치고 제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조용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지니며,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2. 이 해석은 바울이 13-14절에서 왜 창세기를 언급하는지를 쉽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성경이 전하는 최초의 영적 싸움을 끌어와 11-12절의 진술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한 여자가 사탄에게 속아 금지된 지식을 받아들였고, 한 남자를 잘못 가르치고 제압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 바울이 이 드문 단어를 고르는 이유는, 그것이 점성술 전통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은 부유한 여자들이 퍼뜨리는 거짓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이 단어는 주술과도, 그리고 구원의 반대인 죽음과도 연관됩니다.
4. 이런 해석의 흐름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구절로 여겨져 온 15절의 의미를 밝혀 줍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 말하며, 아르테미스 숭배의 신앙관념을 결눈질합니다.
5. 넷째 열쇠를 적용하면, 바울이 15절에 두 개의 이정표를 세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11-12절의 "여자"(15절의 "그가 ... 될 것이다")를 9-10절의 "여자들"(15절의 "그들이 거하면")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 줍니다. 이것은 11-12절의 바울의 지시가 9-10절의 여자들을 가리키도록 의도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또한 그는 특이한 어휘를 사용하여 2:15(*teknogonia*)와 5:14(*teknogoneō*) 사이에 눈에 띄는 언어적·주제적 연결을 만듭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2장의 여자들에 관한 그의 말을 5장의 여자들에 관한 그의 말과 나란히 읽을 때 문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 줍니다.
6. 위의 해석은 1장에서 시작하여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바울의 연속적이고 일관된 사고의 흐름에 잘 맞습니다. 이 해석은 2장이 어떻게 3장으로 넘어가는지 보여 줍니다. 또한 앞의 제11장에서 제가 지적한 2:12에 관한 네 가지 까다로운 질문에 답합니다.
7.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교회에서 여자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제14장 요약: 교회 지도자로서의 여성? 성경 전체의 개관

1. 오직 남자만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규칙은 고린도전서 14:34-35로도, 디모데전서 2:11-15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2. 예수께서 열두 명의 유대인 남자를 사도로 택하셨다는 사실이 지역 교회를 이끄는 데 어떤 자격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3.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일은 대부분 제사장들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오로지 그들에게만 맡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직을 리더십이나 가르치는 임무와 동일시하려 한다면, 이제 이끄는 임무와 가르치는 임무는 성별의 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4. 제4장, 제5장, 제7장, 제8장에서 우리는 "머리 됨"에 관한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창세기 1-3장, 고린도전서 11장은 여성 사역에 대한 제한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5. 교회를 이끄는 일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은 겹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활동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여자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해서 여자가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6. 초대 교회에서 여성들은 두드러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함께 일했고, 바깥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들이 지역 교회에서 공인된 지도적 위치에 세워졌는지를 자세히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7. 여성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신약성경의 증거를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비가 한 교회에서 지도적 기능을 맡았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유니아가 뛰어난 여성 선교 사도였다고 매우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8.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실제로 확실하게 장로로 판정할 수 있는, 이름이 언급된 여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베드로와 요한)를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색 범위를 개연성으로 넓히면, 남성과 여성을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장로직에 대한 분명한 금지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9. 신약성경의 사고와 삶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오직 남자만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전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여자가 결코 교회 리더십에 참여하거나 장로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의도했다면, 앞으로의 교회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것을 분명히 말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나 지도자를 다루는 단락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4:23; 베드로전서 5:1-5; 히브리서 13:17에는 장로직이나 리더십을 남자에게 한정하는 진술이 없습니다.

제15장 요약: 장로로서의 여성? 디모데전서 3장

1. 장로를 세우는 일에 관한 가장 자세한 지시는 바울이 제시하는 장로직의 자격 조건 목록에 있습니다(디모데전서 3:1-7; 디도서 1:5-9).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이 주는 인상과 달리, 헬라어 본문의 이 목록들에는 여자를 분명하게 배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명한 상호보완주의 학자들도 이를 인정합니다. 이 단락들(특히 디모데전서 3장)에는 신약성경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에서 여자도 "장로"의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단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2. 바울이 디모데전서 3:2와 디도서 1:6에서 사용하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관용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성 윤리에 대한 신실함을 겨냥하며, "한 남편의 아내"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3. 장로나 목사의 결정적인 임무는 양 떼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남자만 장로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3:1-7에서 열거하는 열일곱 가지 자격 조건은 모두 남자에게서도 여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성과 행동입니다. 같은 특징이 디도서 1:5-9의 해당 목록에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4.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지역 교회에서 다른 어떤 임무를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성은 리더십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5. 제11장부터 제15장까지 저는 디모데전서 2-3장이 여자의 가르침과 장로직의 여성에 대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신약성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와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관한 정보를 고려합니다. 근거 없는 추측 없이도 성립하는 단순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의 직접적인 초점 바깥에 있는 다른 영역들에도 빛을 비춥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이 설명을 신뢰할 이유가 됩니다.

제16장 요약: 결산하고 서로 가까워지기

1. 제2장부터 제15장까지에서 얻은 결과는 위계적이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결혼관을 뒷받침합니다. 동시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이끄는 것에 대한 모든 전면적 금지를 거부합니다.
2. 복종이라는 개념은 겸손과 평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동등하게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 때문에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3. 우리의 결과는 창조와 새 창조가 각각 어느 정도로 신자의 행동을 이끌어야 하는지에 관한 전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창조(배경으로서)와 새 창조(전경으로서)가 겹쳐 있는 현재의 상황에 잘 들어맞습니다.

4. 남편들은 아내들을 다스리는 대신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자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부르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성별의 혼란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5. 어떤 해석들은 해석자가 성경에 너무 적게 기대했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본문을 정밀하게 연구하면 성경 저자들을 새롭게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6. 교회와 교단과 그 밖의 연합체들이 스스로 복음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로써 그들은 신약성경이 일치에 대해 말하는 것에 순종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7. 현재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논쟁의 양쪽 모두에 약점이 있습니다. 해석상의 의견 차이를 넘어 일치에 이르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8.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저열한 동기에 이끌린다는 평등주의자들의 주장은 버려야 합니다.
9.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논쟁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여성 사역에 관한 평등주의적 견해는 신학적 자유주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자들 사이에서 결정적인 질문은 성경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며, 이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반대가 성경의 권위나 복음의 진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10.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를 사람들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요한복음 17:11, 20-23).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라는 사도적 지시는 서로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대화를 요구합니다. 여성의 리더십이나 사역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 온 사람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논증을 새롭게 검토하고, 건전한 해석 방법만 사용하도록 주의하며, 무엇보다 해당 단락의 문맥과 사도의 흐름에 더 많은 주의와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야 합니다(로마서 15:7).